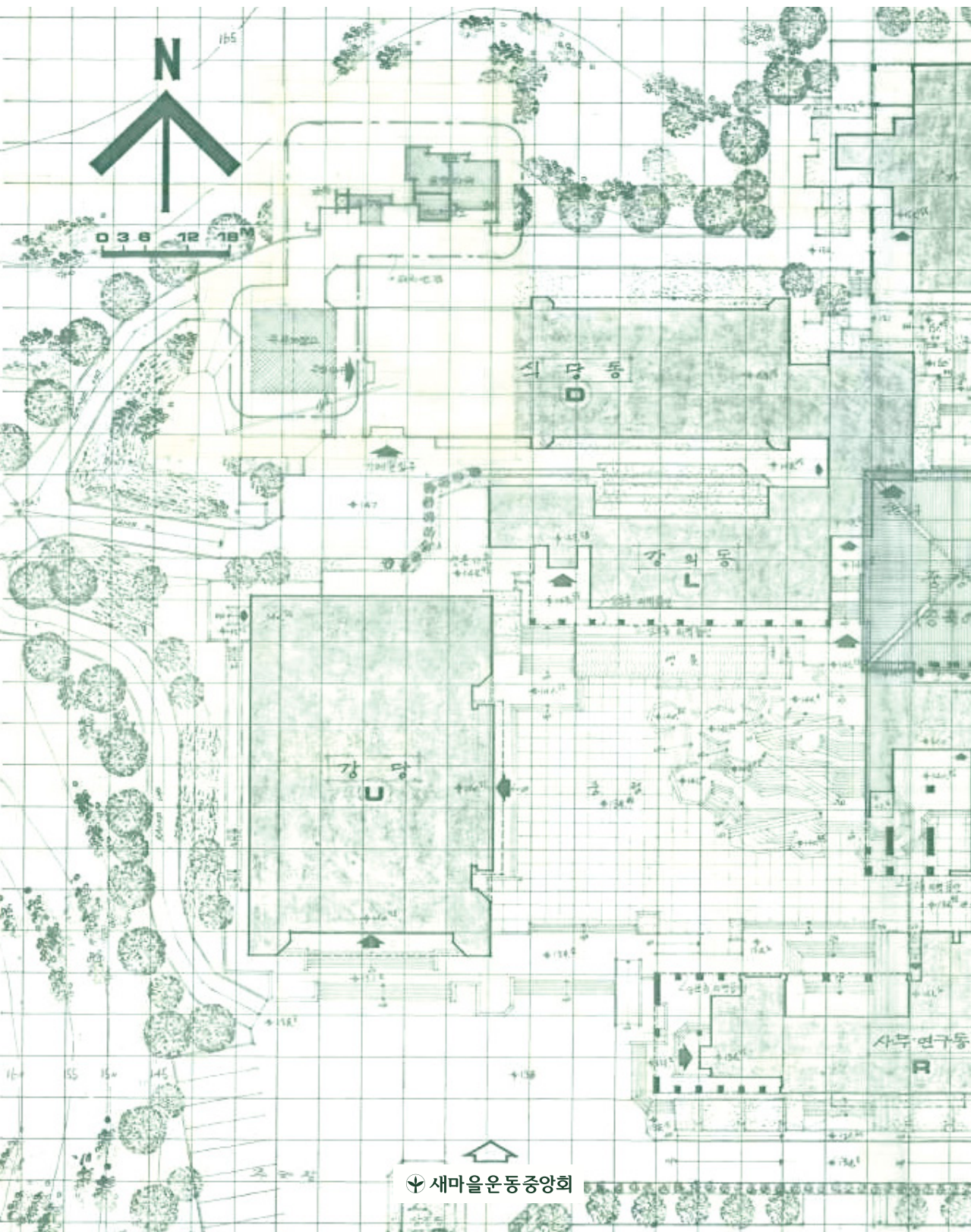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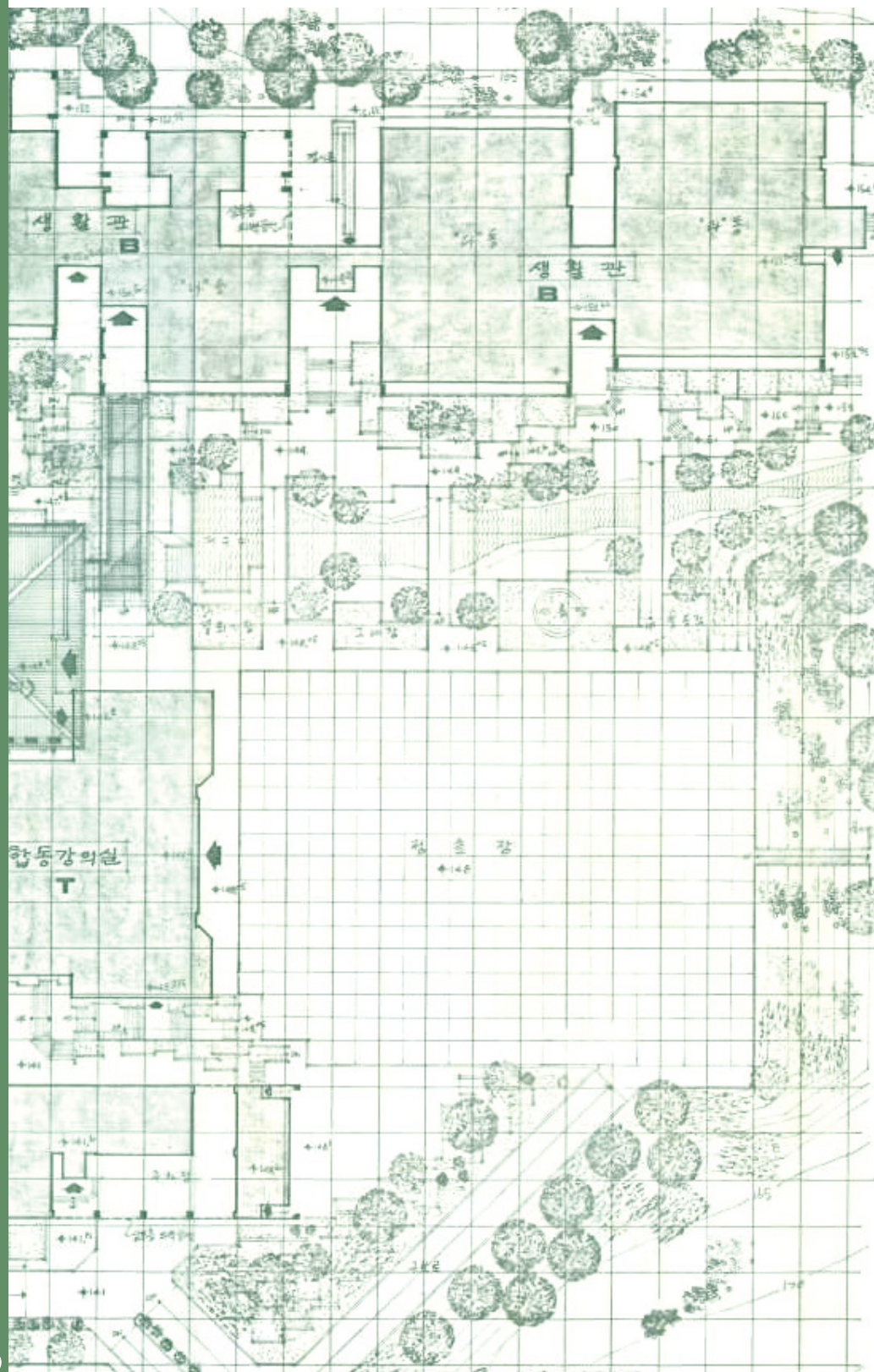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신축기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신축기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신축기

일러두기

1. 본 책은 1983년 4월 26일 완공된 새마을지도자연수원(현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신축을 담당했던 김기명 교수(당시 건설본부장)가 당시의 개인적인 기억과 경험을 바탕으로 2018년에 작성한 신축기를 원전으로 하며, 최대한 저자의 원전에 따라 구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본문은 연수원 부지 선정부터 준공식까지의 시간 순서대로 구성하였습니다. 개인적 기록의 특성상 일부 주관적인 저자의 설명과 개인적인 의견이 어우러져 있으며, 시간이 흐르면서 일부 내용의 사실관계가 부정확하거나 변형, 왜곡되었을 수도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3. 본 책에 실려 있는 문서, 지도, 자료, 사진 등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새마을운동중앙회가 보관하고 있는 신뢰할 만한 자료들을 새롭게 추가한 것입니다.

돌, 시간 그리고 시대를 담은 건축

“건축은 시대를 담은 그림이다.” 윈스턴 처칠



건축은 단순히 돌과 철근의 결합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시대의 이상과 열정을 담아낸 살아 있는 증언이며, 역사의 흐름을 간직한 공간입니다.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은 이러한 건축의 본질을 온전히 품고 있는 의미 있는 건축물입니다.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연수원은 새마을운동이 이끌어 온 국가와 사회의 변화와 성장을 묵묵히 지켜보며, 그 역사의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기둥 하나, 벽면 하나에도 대한민국 근대화의 여정이 깃들여 있으며, 연수원의 공간 곳곳에는 ‘잘살아보자’는 민초들의 뜨거운 열망이 스며 있습니다.

이 책은 연수원의 건축 과정과 그 안에 담긴 이야기를 통해, 건축에 참여한 이들의 고민과 열정, 그리고 새마을정신이 어떻게 건축적 요소로 구현되었는지를 생생하게 전하고자 합니다. 이 책을 통해 연수원의 건축적 가치와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며, 나아가 새마을운동이 지향하는 공동체 발전의 정신이 더욱 널리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2025년 4월

새마을운동중앙회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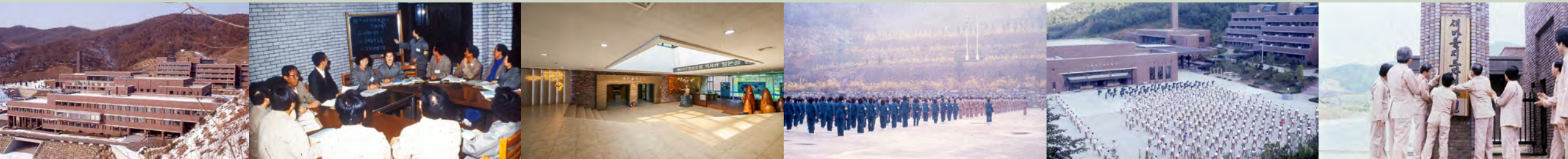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연혁 沿革

연수원 건립 이전

- 1972년 1월 14일 고양 농협대학 내 독농가 연수원 발족
- 1972년 1월 31일 독농가 교육 실시
- 1972년 7월 2일 새마을지도자 교육 개시
- 1973년 4월 8일 경기도 수원 농민회관으로 이전
- 1973년 5월 31일 '새마을지도자연수원'으로 명칭 변경
- 1979년 12월 28일 「새마을지도자연수원설치법」 제정
- 1980년 4월 22일 새마을지도자연수원 법인 설립

연수원 건립 이후

- 1983년 4월 26일 경기도 성남 현 위치로 연수원 신축 이전
- 1983년 12월 31일 새마을운동중앙본부에 통합
「새마을지도자연수원설치법」 폐지
- 1990년 1월 1일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으로 명칭 변경
- 2000년 3월 19일 '새마을운동중앙회중앙연수원'으로 명칭 변경
- 2016년 8월 1일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으로 명칭 변경



차례 次例



04

06

12

18

20

21

34

40

47

60

64

70

82

86



봄

연수원 신축이 확정되다
최적의 부지를 찾다
사라진 만년필과 멧돼지 흔적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하다
예상치 못한 변수에 부딪히다

연수원 신축이 확정되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고, 11월 3일 국장이 끝났다. 부모 잃은 고아처럼, 새마을운동을 하던 사람들의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수원 농민회관에서 전세살이를 하던 새마을지도자연수원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항구적인 자체 시설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대통령께 서는 “나도 생각은 하고 있으니 기다려 보라”는 언질을 주셨으나 생전에 그 뜻을 이루지는 못했다.

박정희 대통령의 국장이 끝나고 한 달여 지난 12월 6일, 구자춘 내무부 장관이 김준 원장에게 본격적인 새마을지도자연수원 신축 추진 방침을 전달했다.

12월 8일부터 경기도청 도로과의 도움을 받아 수원 인근의 국·공유지 지도를 갖고 현지답사를 시작했다. 이 일의 실무는 당시 총무부장이었던 필자와 부원장들이 담당했다. 현지답사 첫날, 조영기 부원장과 함께 상록수 발상지인 안산으로 갔다.

눈발이 시름시름 날리는데, 지도를 들고 당시 상수도 공급지로 사용했던 수암리 작은 산봉우리에 올랐다. 사방이 확 트여 전망은 좋았으나 연수 시설을 수용할 만한 평지가 부족했다.

다음 날은 용인 자연농원(현 에버랜드) 근처 포곡면 조부리 일대를

연수원 신축 추진 일지		담당	부원장	원장
79. 12. 13.		[Red Stamp]		
구분	추진 내용	비고		
신축 부지 추천	경기도 한강이남 국유지 ① 시흥 수암 산호 하 20외 34,230㎡ ② 용인. 포곡. 굽어 하 20외 40,000㎡ ③ 시흥. 과천. 하리 하 29-3외 135,980㎡			
현지 답사	연수원: 김기명, 이종준 경기도: 박 전 양 (국유재산계장) ① 후보지 서북향. 경사 20°. 수암(수인산 남단) 국유원속. 평토면적 34ha. ② 후보지 포곡농원. 경사 4°. 전후부지 부락 73. ③ 후보지 수유관계 불행실. 인근 신라은행 국유지 양호. 공용 방호채호 산폐.			

1979년 12월 13일 경기도 시흥, 용인, 과천 현지답사(연수원 신축 부지 업무일지 중)

돌아보았다. 경기도 안성 농협 한독목장 부지, 수원 근교 여천리 칠갑산 아래 임목육종연구소 구내, 과천 남태령 신탁은행 행우회 부지, 용인 죽전 부지(현 단국대학교), 한국정신문화연구원(현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있는 성남 운중동 2개소, 신갈 경기대 신축단지, 그리고 도로교통공단 용인 자동차시험장 건너 녹원마을 일대 등 30여 개 항목의 체크리스트를 들고 한강 이남 13개 지역을 답사했다.

제일 중요한 연수원 부지 조건은 바로 주변 지형이다. 연수 생활은 수도(修道)에 가까운 심신 단련이기 때문에, 일상생활과 차단되어 부지에 들어오기만 해도 마음이 차분해지는 데 도움이 되는 수목이나 호수, 바다 등과 맞닿아 있어야 한다.

전(全) 시설의 교재화(化), 전(全) 환경의 교육장화(化)를 기본으로 하며, 풍수지리설을 고려한 남향 모태(母胎)형이어야 한다. 이는 채광과 에너지 절감을 위한 기본 조건이다.

다음은 교육 운영상의 입지 조건이다. 연수생들의 입교와 강사들의 출입, 그리고 교육 지원 업무 수행의 편의성을 고려해야 한다. 소음, 냄새가 없는 청정지역이기도 해야 한다. 이러한 요소들을 염두에 두고 찾아보면 대상지는 극히 드물다.

어느 정도 조건이 맞아도 보이지 않던 문제들이 가로놓이는 경우도 있었다. 과천과 사당동 경계인 남태령 부지는 여러 면에서 조건은 충족되었지만, 지하 깊은 곳에 주요 시설이 있어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제한되어 있었다. 운중동에 있던 후보지는 향(向)이 조금 맞지 않아도 주변이 잘 꾸며져 있어 아늑한 분위기가 좋았으나 월남한 분이 조상들

研修院 新築敷地 選定 資料			
1. 林野現況			
所在地	始興 秀岩 声浦 山 20 外 4 筆地	竟仁 蒲谷 金魚 山 202 外 1 筆地	始興 果川 下里 山 79-3 外 2 筆地
面積	34,230 坪	40,000 坪	35,880 坪
所有	國有 (山林庁 所管)	左 同	左 同
向方	西 南	左 同	左 同
傾斜度	20°	30°	35°
林木	소나무 3-5年生 散生 (林木度 約 10%)	潤雜木 密生 (林木度 約 70%)	潤雜木 散生 (林木度 約 50%)
標高	90 100 m	100 100 m	150 m
土質	黃 粘 土	黃 砂 土	砂 岩 土 (岩石山)
交通	- 半出張所 進入路에서 西北向 500 m 地矣 - 水仁産業道路에 近接 - 市外 버스 運行中	- 竟仁邑 東北 5km 地矣 - 交通事情不便 - 林地까지 車輛 接近可	- 서울 ~ 南陽線 삼례驛地處 左側에 近接 - 서울 安養市內 外 버스 運行中
制限事項	半都市計劃地已內 (公園 綠地 地域 豫受地)	一般 地域	- 開發制限區域 - 進入道路 開設 至難
建設部에서 管理換 協議中. (山 2-17)			
2. 適地判斷			
始興 秀岩 声浦 山 20	竟仁 蒲谷 金魚 山 202	始興 果川 下里 山 79-3	
交通, 位置, 土質等 諸般立地 條件 良好 하여 敷地로 適合	周圍 位置 土地等 良好하나 交通 不便하여 不適合	交通等 立地條件 良好하나 岩石山으로 建築 및 敷地造成 至難하여 不適合	

연수원 신축 부지 선정 자료

의 가묘를 쓰고 있었다.

신갈 후보지는 영동고속도로를 접하고 있긴 했으나 고속도로 소음은 문제가 되지 않았고, 향도 남향으로 쓸 만했다. 역사적으로 개혁 세력인 조광조의 유적이 가까이 있었는데, 우리는 일단 이곳을 내정하고 토지(소유자) 조사까지 끝냈다.

다른 후보지로 1,800평 규모의 용인 군유지도 있었다. 두꺼운 옛 기왓장들이 늘어져 있길래 마을 노인에게 사연을 물었더니 그것도 모르고 자리를 잡으려 했냐며 원래 그곳은 망나니가 칼춤을 추며 사람의 머리를 베던 형장(刑場)이었다고 한다. 군유지로 남아 있던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었다.

이야기를 듣고 나니 마음이 내키지 않아 망설이고 있었는데, 서정화 내무부 차관이 나와 보고는 소음 체크는 해봤냐고 물었다. 어디를 가나 소음 체크는 기본이다. 교육장은 40데시벨 이하여야 한다. 소음은 문제가 없었다.

그때 마침 헬리콥터 편대가 고속도로를 따라 비행하는데 80데시벨로 소음 수치가 높게 나왔다. 고속도로가 헬리콥터 항로라는 것을 고려하지 않았던 것이다. 큰 실수를 저지를 뻔했다는 생각에 식은땀이 다 흘렸다. 그날 밤, 이 정도 선에서 실수를 깨우치게 된 것에 감사 기도를 드렸다.

업무추진일지

담당부원장 원장

8. 5. 20

구분	명	추진내용	비고
소음측정및 진원조사	신갈후보지 소음측정	측정시간 10. 00 ~ 11:10 측정지 영동고속도로 2차선 측정장소: 후보지내 2차선 결과: 고속도로 소음 경북고속도로 최대 45 ~ 48dB 영동: 최대 73 ~ 75dB	
5. 21	관할 후보지 현지조사	1. 정복원 장 2. 김기영 (사진 촬영 및 수원조사) 3. 水源, 舍宇. 4. 路旁, 地面積過多	

1980년 5월 20일 소음 측정 결과 최대 73데시벨이 나온 신갈 후보지(연수원 신축 부지 업무일지 中)

최적의 부지를 찾다

다음 날 김종환 내무부 장관에게 보고가 올라간 후 대책 회의가 열렸다. 김 장관이 군에 있을 때 군사시설 부지로 봐둔 곳을 추천해 줄 테니 부담 갖지 말고 실무자들이 보고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하라고 전달받았다.

당시 백궁리, 이매리 들판을 거쳐 분당저수지 옆길을 지나 울리 산골 마을로 들어갔다. 1980년 5월 1일 오전 10시경, 새마을 농로가 끝나는 정자나무 밑에 차를 세워두고 정교관 부원장과 함께 먼저 절골로 들어갔다.

제법 경사가 있는 초입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한참 올라간 곳에 논이 있기는 했지만 평지 면적도 충분하지 않았다.

오래전 절이 있었다고는 하는데 절터 윤곽도 없었다. 등고선을 따라 좀 더 올라가면서 좌측으로 작은 능선 몇 개를 넘었다. 지금의 새마을 마크를 조성해 놓은 봉우리에 앉아 내려다보니 ‘여기다’ 하는 느낌이 확 들었다. 지금까지 찾아다니던 10여 곳의 후보지보다 월등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남향 모태(母胎)형(좌청룡 우백호)에 생김새나 크기도 아주 적합하고 외부와의 단절 공간도 충분했다. 가운데에 흐르는 계곡만 잘 처리하면 자연경관을 크게 훼손하지 않고도 건축 대지나 부대시설 부지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았다. 먼 장래를 대비한 예비 공간으로 붓당골도 함께 확보해 두면 좋을 것 같았다. 욕심 같아서는 매지봉 능선과 영장산 정상까지 포함시키고 싶었지만, 당시 내무부 지방행정국 이상희 국장이 너무 넓다는 의견을 내서 지적도에 자를 대고 줄을 그어 지금의 경계대로 부지를 확정했다.

사라진 만년필과 멧돼지 흔적

그날 미답의 숲속을 두세 시간 돌아다니다 당시 아주 귀한 물건이었던 필자의 파카 만년필을 잃어버렸다.

1980년 가을, 산 입구로 올라가는 길 좌측 순흥 안씨 집안 비석 아래 고구마밭을 멧돼지가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다. 지금은 식당 자리인 강장옥 씨네 논도 그 녀석들이 난장판을 만들어 놓았을 정도로 이곳은 산골 오지였다.

부지 경계 밖 영장산(414m) 9부 능선에 작은 늪지대가 있었는데 멧돼지 소굴은 그 근처였다. 바로 넘어 공원묘지 근처에 예비군 사격장이 있어도 꿈쩍도 하지 않던 놈들이 신축 공사를 하는 동안에는 어디로 갔는지 나타나지 않았다.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하다

신축 부지는 김종환 장관 덕에 아주 좋은 곳으로 확보할 수 있었다. 토지 조사와 일반적인 매수 협의는 성남시에서 맡고, 토목설계는 국토개발공사 대형 설계를 전담하는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현 한국종합기술)가, 건축설계는 세계 100대 건축가 중 유일한 한국인인 김수근 교수의 공간사(社)가 맡기로 했다.

대부분의 신축 공사는 설계 시에 국내외 유사 사례를 수집하여 좋은 점들을 채택해 반영하지만, 새마을지도자연수원은 특수한 과정을 학습하는 성인들을 위한 합숙 교육시설이기 때문에 국내외에서 비슷한 사례를 찾을 수가 없었다.

공부하는 곳이지만 대학 캠퍼스는 아니고, 숙박을 하지만 호텔 형태도 아니다. 연수원의 고유 특징인 전(全) 시설의 교재화(化), 전(全) 환경의 교육장화(化)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새로운 창작을 해야만 했다.

다행히 이 일의 실무를 맡은 필자는 군 복무를 마치고 한동안 건설회사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었다. 당시 필자의 장형(長兄)이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던 점도 조금이나마 건설공사에 대한 기초지식을 얻는 데 도움이 됐다. 또한, 당시 연수원에서 비교적 장기 근무를 했고, 시청각 업무도 담당하고 있어 시설 전반에 관한 기능적 연관성을 잘 파악하고 있었다.

업무추진일지		담당	부원장	원장
20. 5. 4.		XXX	YYY	ZZZ
건 명	추진 내용	비 고		
	• 울동 후보지로 확정 - 내무부 장관 결재 통지임수 5/30 • 설계는 공간연구소(김수근)에 의뢰토록 할 것. (김종환 장관 지시 사항)			
20. 5. 31				
성남시 출장 (정북원장, 총무부장)	면담 성남시장 <u>李 鳳 斗</u> 부시장 <u>宋 成 儀</u> 건설국장 <u>權 宗 植</u> 도시국장 <u>李 炳 淳</u>			
	• 성남시 도시계획상 전입로 이용여지없음 • 방단 축지로 (7.13) 적용을 받음 • 전입도로 부지관계로자로 수집은 도로시설 석박라의 구역 확장이 선행되어야 함 • 수질검사를 요함 • 자연축지 해제도는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전설부령 제145호)에 의거함 • 수질검사. 감정의뢰 • 등기부등본 징수 (5/31) 전수 6/2 10시수령			

부지를 울동으로 결정하고 공간연구소에 설계를 지시(연수원 건축 부지 업무일지 中)

토목과 건축설계 회사가 결정되고, 공간사(社) 설계팀 김수근 교수와 김원식 전무, 김남현 이사, 김평일 팀장, 신훈 씨, 배영정 씨와 첫 회합을 가졌다. 처음으로 접하는 과업이라 막막했다.

하는 수 없이 연수원에 교과 진행 사항과 시간대별 연수생 동선, 과정별 특성을 소상하게 기술해 달라고 요청했다. 연수생 선발 과정부터 연수원 도착, 등록, 생활관 배치 등 전 일정을 포함하여 필요한 공간과 각 시설 간의 연관관계, 모든 과정의 수행 목적, 연수생 이동 경로와 소요 시간 등을 기술하고, 교육시설 외에 부대시설과 전기, 기관 설비까지 넣어 8절지 약 250쪽의 설명서를 만들었다. 이것을 아카데미플랜(academicplan)이라고 한다.

시설 사용자가 작성해 제공하는 아카데미플랜에 따라 설계사는 마스터플랜(master plan)을 수립하고, 기획설계, 계획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 순으로 진행하면서 공사비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감안해 수정·보완해 나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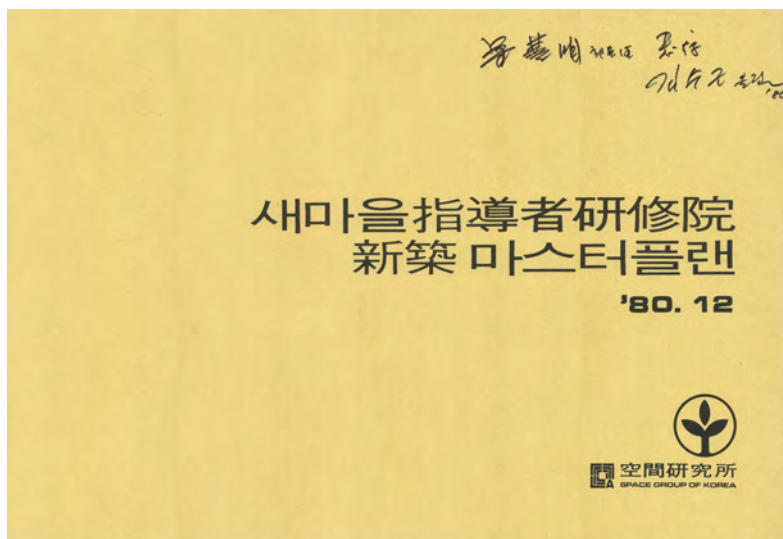
연수원의 교육 특성과 교과 진행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인지하기 위해 김수근 교수를 제외한 모든 설계 요원들이 직접 입교하여 전 과정을 이수했다. 이를 통해 아카데미플랜에서 설명하지 못한 부분까지 체득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토목설계팀과도 계속 공조하면서 과업을 진행했다. 이미 진행한 설계나 공사를 다시 수정하는 일은 매우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공사비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러다 보니 설계 과정에서 슬한 실랑이가 벌어졌다.

2. 연수 생활		이동방향 () 소요시간 단위 분				
항목별	내 용	참여인원	이동방향(차)	필요시설	필수장비	비 고
입학	- 새마을지도자 - 부녀지도자 시도별로 집합하여 인솔공무원이 월요일 09시 까지 연수원에 등록한 원거리에서 오는 지도자는 대부분 인근 여관에 전일 도착하여 합숙하게 됨 - 사회지도자 - 부녀사회지도자 - 대학생 간부 입교 당일 중상침 시련 광장에 점원 하여 연수원 버스정으로 08시에 출발 09시에 연수원에 도착함 - 농수산 단체 간부 개별적으로 당일 09시 까지 연수원에 도착 등록함 - 외국생도 - 과학원생 - 인턴 의학원의 배스로 전원 동사에 등록함					
등록 지급금 지급	- 새마을지도자 - 부녀지도자 현관에서 도착 되는대로 본인확인 고반부여 호명배정문하고 해당 강의실 에서 진행 안내를 한다음 2차원에서 지급금을 지급함 (연수복, 모자, 뱃지 운동화 교재 명찰) - 사회지도자 - 부녀사회지도자 - 대학생 간부 - 농수산 단체 간부 사전에 유인된 명단 (모반 설명, 소속)을 인솔중 배소에서 나누어주어 교편과 호명을 확인 도록 하고 연수원에 도착 즉시 해당 강의실 지정된 좌석에 앉 도록 하여 결번만 확인하고 등록에 대한 진행 안내를 한후 지급금 지급 (명찰교재 연수복, 모자, 뱃지)	300명	현관→강의실(60)	현관 주차, 암막 커튼, 방범방	4명씩, 학생지 목단, 교재, 교단	1 강의실 220석 2. 110석 (암막은 전용식)
생활관 배치	연수생들은 사물과 수련한 지급금을 가지고 생활관에 와서 자기편대를 찾아 연수복 으로 갈아입고 사물과 사물을 정돈한다	400명	강의실→생활관(60)	생활관 (열선) 방난방 간이 열의장	침대 사물함 침대 매트, 옷장 화장실, 욕조, 욕조 방충 2중창, 난방, 전등등	1실 16명 34실 부수계실, 세면장, 욕조 화장실, 욕조, 욕조 방충 2중창, 난방, 전등등
외복교환 선 치	지급된 외복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유계실 에 설치된 외복교환소에서 맞는 옷으로 바꾸어 입는다	60명	생활관→유계실(60)	유계실	각종 옷, 기성복	

연수생 입교부터 수료까지 연수원 전 일정을 정리한 아카데미플랜

항목별	내 용	참여인원	이동방향(차)	필요시설	필수장비	비 고
사진촬영	외복을 갈아입은후 학적부 및 별명용 개인 사진을 촬영한다	400명	(60)	간이촬영소	카메라, 조명	식당, 휴게실, 이용
강의실 입장	해당시간 10분전에 전수원에 설치된 스피커 를 통하여 들리는 새마을 노래를 선도로 전 연수생은 자차 차지 강의실에 입장한다	200명	생활관→강의실(10)			
학적부 및 소감 작성	해당 강의실에서 소감 작성의 학적부를 기록하고 어떤 사람이 어느 정도의 수준을 차고 무엇을 원하는가를 알게 위하여 나머 새마을 지도자의 경우에는 소감외에 소감수정문하고 사회지도자와 부녀사회 지도자의 경우는 입교소감을 기록하도록 한다	400명	(50)		학성장치	각 강의실
입교소감 분 석	연수생이 작성한 입교소감과 학적부 중 단양교관에 게 주어 저기가 단양할 반 들의 정도와 자제를 측정하도록 한다					
입 교 식	전원이 강당에 입장하여 약 20분소요되는 간소 하고도 엄숙한 가운데 입교식을 갖는다	400명	강의실→강당(10)	관중, 암막, 동등 입교식 (20)	시원부 학생장치	강당(합동강의실) 544석 영사실, 강사대, 조명, 휴게실 이동식목단, 무대, 조명
교관단 인사	입교식에 이어 연수생활을 같이 할 교관 단이 소개된다 (교관단이 연수생활에 일별로 정돈하여 인사를 하게 됨)	400명	같은 장소에서 계속			
교과 과정 소 개	교과의 전과정을 슬라이드로 보여줌으로 서 연수생활 전반에 관한 이해를 높임	400명	"		슬라이드 CCTV	
연수 생활 안 내	연수생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구두로 안내 하므로써 연수생들이 입교 당일부터 연수에 입한 기분과 자세와 전반적으로 질서를 지키면서 부드럽고 명랑한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한다	400명	강당→강당(10)		"	10분간 휴식 후 관공강에서 계속
전전한 노래	입교당일 긴장된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고 총래 타성적으로 불려온 퇴폐 가요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며 전전한 노래의 필요성과 교육중에 부른 노래를 가르쳐줌	400명	강당→강당(10)		피아노 를 건	



설계사 공간연구소에서 수립한 마스터플랜

“여러분은 줄 하나 그으면 그만이지만 우리는 모두 돈으로 해결해야 하는 거요.”라고 불만을 토로하면, 새로 짓는 건축이라면 적어도 30년을 내다봐야 하고, 새 신발도 처음에는 불편하기 마련이라고 반론을 제기했다. 그 말도 맞는 말이다.

대립과 다툼만으로는 과업을 잘 수행하기 어려우므로 설계팀과 하나가 되기 위해 많이 노력했다. 당시 수원시 근교 오목천동에 있던 필자의 전원주택에서 토종닭과 막걸리를 먹는 회합을 종종 가졌다. 공간사(社) 지하에 있던 고급 커피숍 쿠폰을 수십 장 구입해 설계팀 총무에게 맡겨두고 근무자들이 수시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일반적인 갑을관계가 아닌 역사적인 과업을 맡은 새마을 동지로 서로 부담 없이 의사소통하고자 했다.

설계 방향은 전(全) 시설의 교재화(化), 전(全) 환경의 교육장화(化)에 부합하도록 중점을 두었다. 작은 부분까지도 새마을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기능별로 각 시설을 유기적으로 배치했다.

경제적인 효과는 물론 시공과 유지관리가 쉬운 내외장재를 사용하고, 반드시 국산 자재를 사용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에너지 절감을 위해 채광과 냉난방 순환 체계를 마련하고, 시청각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강사와 연수생 등을 고려한 강의시설과 우천 시 비를 맞지 않고 이동할 수 있는 경로, 시설 유지관리 편의를 위한 지하 연결 통로와 피트(pit) 등을 요청했다.

김수근 교수는 연수원이 민족정신을 발양하는 의미 있는 시설이므로, 여기에 우리의 전통적인 사찰 가람 배치 형식을 도입하고, 수려한 주변 산야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외장재를 사용하여 다보탑 같은 국보급 감각을 시현하겠다는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아카데미플랜, 마스터플랜, 기획설계, 계획설계 등 단계별로 계획된 시설의 기능별 크기와 위치는 부지 설계에 따라 수시로 변경해 보았다. 각 공간(방, 실)의 크기와 위치도 여러 방향으로 놓아 보고, 창문과 출입문의 크기와 위치도 수십 번 바꾸면서 감각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 보았다.

내외장재의 선택에 따라 예산이 많이 변경되기도 했다. 설계팀과 연수원 사이에 수많은 마찰과 대립이 오갔다. 서로 부딪칠 때마다 막걸리와 커피가 약이었다. 합의가 이뤄지고 도면이 나올 때마다 한 단계씩 진전했다. 모든 단계마다 건설부 설계심사를 거쳐 검증을 받아야 했다.

실시설계 단계에서는 더욱 첨예한 신경전이 이어졌다. 일반적인 건축 기준과 달리 연수원 특성상 교과 진행에 꼭 필요한 사항들이 설계 표준에는 부합하지 않기도 했다. 예를 들어, 대강당을 비롯한 각 강의실의 강단 높이는 일반적인 높이인 90cm로 하지 않고, 강사와 연수생의 거리를 최소한으로 하고자 60cm로 했다. 대강당같이 공간 면적이 큰 경우, 냉난방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대류식보다는 지하철 좌석 난방처럼 냉온기 배출구(diffuser)를 의자 밑에 배치했다.

우수한 자연환경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김수근 교수의 제안으로 윈도우 픽처(창그림, window picture)를 도입했다. 큰 창문을 통해 계절마다, 달마다, 주마다, 매일 같이 변하는 자연이 한 폭의 그림이 되어, 서 있는 사람의 시선에 따라 각각 다른 경관이 나타난다. 성남 분당 울동에 위치한 새마을지도자연수원에서는 건물 안팎으로 살아 있는 수많은 풍경화를 볼 수 있다.

에너지 절감을 위해 연수원 모든 창문에 복층유리를 사용했는데, 당시로는 획기적인 시도였다. 실내 온도 조절을 위해서 방의 크기에 따라 점등 스위치를 세분하고, 대강당의 경우 오전과 오후의 채광 각도가 연수생들의 시각에 지장을 두지 않도록 모서리 처리에 유의했다.

내외장재는 2급 변색 벽돌을 사용했다. 당시, 1급 벽돌 1장이 130원이었는데 87원인 2급 벽돌을 사용해 예산을 많이 절감했다. 내장재로는 다소 어두운 편이었으나, 일반 조적에 몰탈 마감으로 도색하면 5~6년마다 5~6억 원 정도의 관리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왔다.

복도가 다소 어두운 편이긴 하지만 큰 문제가 되진 않았다. 강의실



대강당에서 연수를 받는 새마을지도자



흰 벽돌로 꾸며진 내부 벽의 예전 모습



전기시설 작업 사진첩

은 백색 고압 벽돌을 치장 쌓기로 마감했는데, 성인 교육시설이기 때문에 낙서나 더러워질 가능성이 적어 별도의 도색은 하지 않아도 괜찮았다. 이처럼 새로운 자재 도입도 많은 토론을 거쳐 결정했다.

원장실은 연수생들의 동태를 상시로 살필 수 있도록 앞뒤로 개방하고, 모니터링 설비도 완비했다. 방송실은 모든 교과 진행과 시청각 교육이 유기적으로 이어지도록 연수부와 인접한 곳에 위치했다.

식당 입구 긴 복도는 두 줄 입장이 가능하게 조성했다. 한 줄은 밥을 많이 배식하는 줄이고, 다른 한 줄은 적은 양을 배식하도록 했다.



발파식으로 쌓아 올린 국기 게양대 석축

초입에는 세면기 2대를 양쪽으로 배치해 식사 전 손 씻는 습관을 생활화하도록 했다. 같은 밥을 먹어도 산이나 들에 가서 먹으면 밥맛이 더 좋기에, 식당 벽 전체를 창문으로 만들어 인접 산이 식당 안으로 연결되는 효과를 시도했다.

기관설비나 전기설비의 관리도 용이하도록 지하 피트(pit)를 모든 건물에 연결했다. 원활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피트의 최소 크기를 2m×2m로 했다. 토목설계 시, 정확하게 토적을 계산해 토량이 외부로 나가거나 들어와야 하는 부담이 없게 했다.

공사에 사용한 석재도 토목공사 과정에서 나오는 자연석이나 발파

석(發破石)을 재활용했다. 이를 활용해서 진입로 석축과 점호장 석축을 쌓고, 운동장 관람석도 모두 토목공사 부산물로 사용했다.

돌 마당 가운데에 발파석을 깔면서 사이사이에 잔디를 심었더니 아주 훌륭한 돌 마당이 되어 각종 행사장으로 활용했다. 업무동 건물 지하통로는 연수생들의 이동 거리 단축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

모든 시설을 전(全) 시설의 교재화(化)라는 관점에서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 점호장 국기 게양대 아래, 발파석으로 만든 담을 보면 작은 돌, 큰 돌, 모난 돌, 둥근 돌이 불규칙적으로 쌓여 있다. 우리의 전통적인 돌쌓기 방식을 빌린 것으로, 돌들이 저마다 생김새에 맞게 자기 역할을 다해 석축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 대강당 정문에서 보이는 이 담은 아마도 연수원 내에서 민주주의를 이해하기 가장 좋은 장소일 것이다.



강의동과 운동장이 바로 이어지는 업무동 지하통로

예상치 못한 변수에 부딪히다

설계와 공사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여러 변수가 생기기도 했다. 당초 전체 수용인원 400명을 기준으로, 1980년 12월 초 마스터플랜과 계획설계를 완료하고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었다.

1981년 5월 초, 전두환 대통령이 연수원 현장을 찾았다. 당시 새마을교육의 효과가 좋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보고된 후, 보다 더 많은 국민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수용 능력을 늘리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이에 수용인원을 600명으로 늘리는 설계변경을 했고, 많은 수정작업이 뒤따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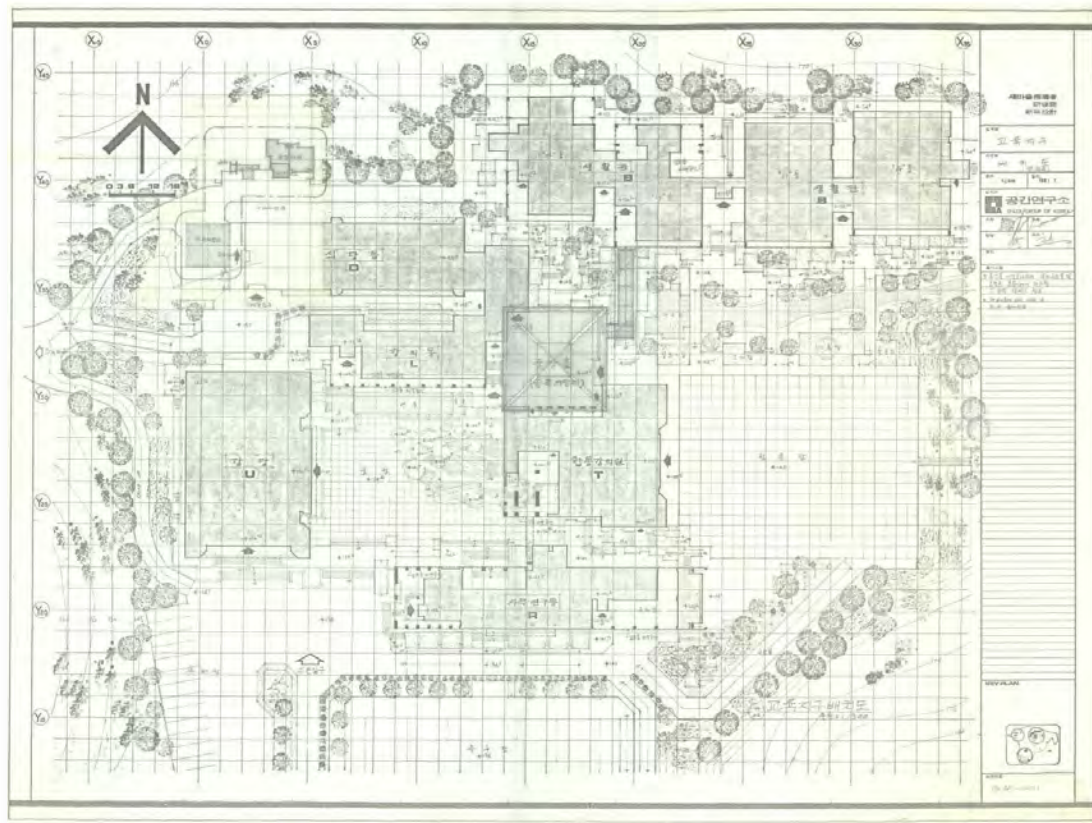
인원을 50% 더 늘리는 데에 따르는 공간이나 추가 작업에 대한 부담은 수용할 수 있었지만, 교육 인원과 시설 증가에 따른 교육 수행과 연수 효과, 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부분은 심리적으로 큰 부담이 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예산 증액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 크게 대두되지는 않았다.

건축 신축설계안에 대한 장차관 지시사항 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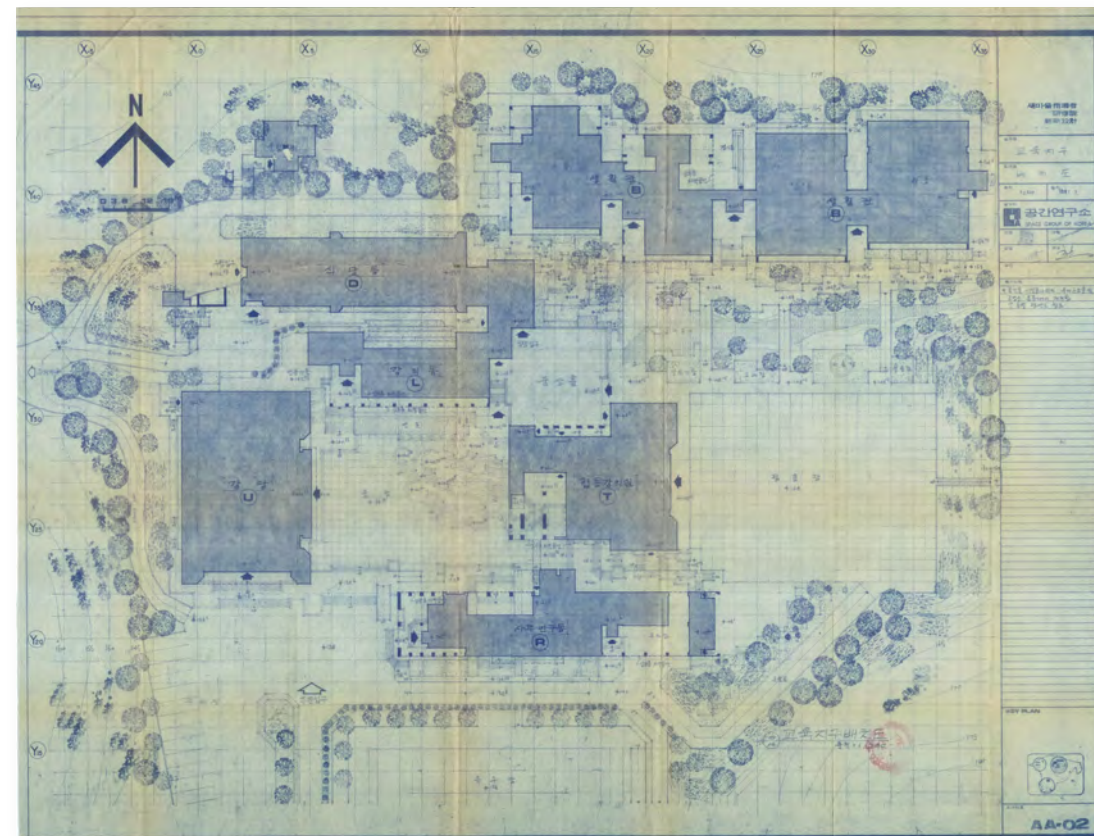
1981. 2. 10.

- 기본 계획 ○ 공간사 설계안 대로 함것
- 소요 예산 ○ 부족분 추가 조치
- 수용 인원 ○ 최대수용인원 600명기준
○ 생활관 실태인원 12명
○ 외국인 수용능력 30명
- 강 의 실 ○ 50명 단위 1실
○ 100명용 1실은 50명 분할가능토록 함것
- 대 강 당 ○ 원로급 초빙 단기교육 및 집회, 행사용 필수시설임.
○ 실내체육관형으로 건축
(정구 가능토록 바닥처리)
- 생 활 관 ○ 기본단위 12명
○ 외국인 전용 30명 확보
(호텔기준 손색없도록)
- 새마을관 ○ 새마을 운동 상징건물로서 위용과 품위를 나타내도록 전면 구조
예유의 함것
○ 예지는 구내도로보다 높게 조성할것
○ 새마을 운동 상징 대형조각품 구상
(많은 시안을 요하므로 미리준비)

설계변경에 대한 장차관 지시사항



새마을지도자연수원 배치도



새마을지도자연수원 도면



여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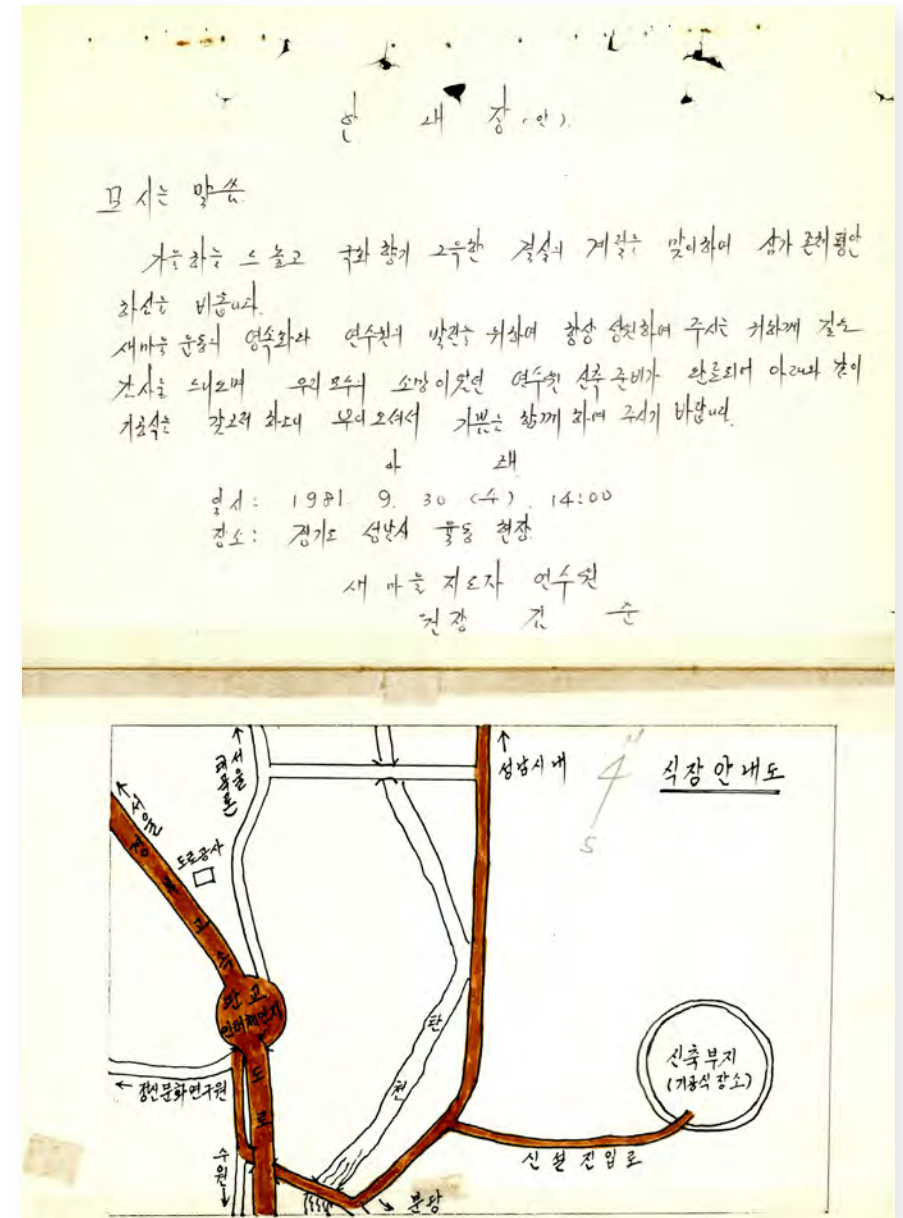
드디어 첫 삽을 뜨다
어려움에 잠 못 들다

드디어 첫 삽을 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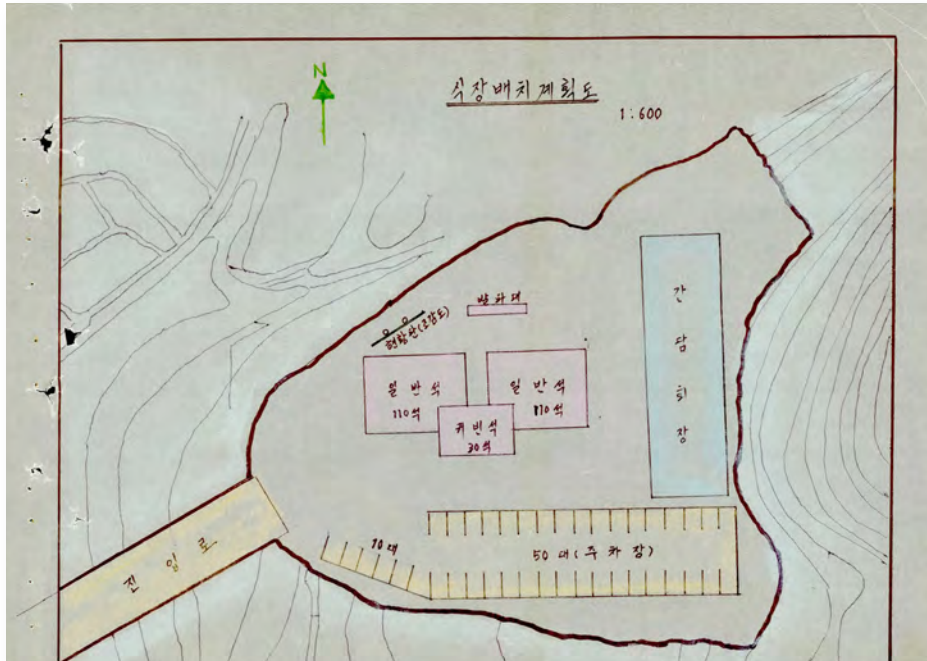
1981년 9월 25일 새마을지도자연수원 신축 공사 시행사로 현대건설이 낙찰되었다. 같은 달 9월 30일, 울동 현지에서 역사적인 기공식을 가졌다. 그동안 단계별로 건설부 설계심사를 거친 도면이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냈다.



연수원 기공식에 참석한 내무부 장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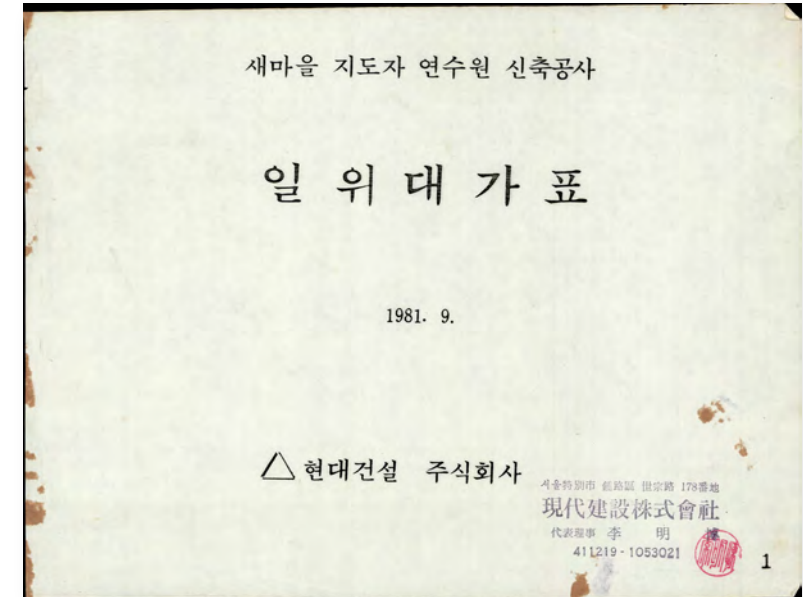
기공식 안내장



기공식장 배치도

전기공사감독은 이번 공사 자재관리를 담당한 김정삼 씨가 베트남에서 같이 일했던 최상호 기사를 추천했다. 설비기관감독은 지금까지 연수원 기관장으로 근무한 김태진 기관장이 추천한 조한규 씨가 맡았다.

시공사인 현대건설도 새마을지도자연수원의 역사적인 의미를 인식해 서인지 김정태 이사를 현장소장으로 파견했다. 연수원도 현장감독팀을 구성했다. 그동안 설계 지휘를 맡았던 필자를 건설본부장으로, 건축감독에는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해병대에서 전공 분야로 근무하다 중령으로 예편한 고대석 씨를, 토목공사감독은 토목설계 주무를 맡아 모든 공사 내용을 완벽하게 소화하고 있던 신재영 씨를 특별 채용했다.



공사에 필요한 항목, 규격, 수량, 단가 등을 작성한 일위대가표

새마을지도자연수원 신축 공사를 위한 인선과 업체 선정은 단순히 영리 목적이 아닌 새마을운동 동지로서, 최소 두세 시간이라도 새마을운동을 배우고, 새마을정신으로 역사적인 과업을 수행하겠다는 서약을 하는 등 기꺼이 이 일을 해내겠다는 의지를 확인한 다음에 진행했다.

참으로 고마운 세상이었다. 시공사를 비롯한 모든 계약업체들이 하청 없이 성실한 시공, 납품 계약을 이행했다. 다만 식당 식탁을 납품하는 업체가 하도급을 준 경우가 있어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업체와 다시 계약한 사례가 한 번 있었을 뿐이다.

각 부문의 근로자들도 성심을 다했다. 하루는 현장 순회 때, 콘크리트 타설공이 달려와 철근 배근 상태를 봐 달라고 요청했다. 도면을 갖고

대조해 보니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였다. 레미콘을 쏘어 넣었으면 그대로 넘어갈 뻔했는데, 참으로 고마운 일이었다. 이 일로 담당 철근공이 몹시 놀랐고, 잠시 자리 비운 일을 정중히 사과했다.

레미콘 기사들이 잠시 대기하는 동안 카드놀이를 한 적도 있었다. 절에 가서도 놀음해 본 적이 있느냐고 물으니 그 자리에서 재빨리 치우고는 다시는 그런 일이 없었다.

강의실 바닥 미장을 담당했던 한 분이 미장 마감 흠손질을 하면서 이 방에 들어와 공부하는 모든 분들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마음을 다지고 가길 바라는 기도를 한다고 해서 눈물겹도록 감사한 마음이 들기도 했다.

매일 천여 명에 가까운 인력이 좁은 골짜기를 메우거나 발파 작업을 하는 등 여러 위험한 공정들을 수행했는데도 단 한 건의 인사 사고도 일어나지 않아 여간 다행스럽지 않았다. 다만 못에 발이 찢려 상처를 입거나 연수원 이현식 교수가 전시관 부착물을 붙이다가 사다리가 미끄러져 팔목을 다친 적은 있었다.

이 공사를 하면서 필자는 기도를 많이 했다. 부문별로 전문 감독들이 있기는 했지만, 어려움에 부딪힐 때도 있었고 걱정스러운 일도 적지 않았다. 걱정엔 잠이 안 올 때면 간절히 기도를 드렸다. 더러는 기도 중에 어렴풋이 방법이 보이기도 했다. 그러면 다음 날 담당 기술자나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아 걱정거리를 해결하기도 했다.

흔히들 건설 현장에서는 관습적으로 비리가 있기 마련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현장이라고 예외일 수 없기에 감독 요원들에게 특별한 마음

가짐을 당부했다. 역사적인 국민 의식 개혁을 위해 연수원 전 교원들이 밤잠을 줄여가며 10년 이상 분골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며, 새마을운동 자체가 깨끗하고 새로운 기풍을 세우자는 운동이므로 우리가 먼저 모범을 보이자고 다짐했다.

우리는 연수원 신축 공사가 역사적이면서도 정치적인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다. 서로 행동이나 처신에 유의할 것을 다짐하면서, 일과 후나 힘든 사안을 해결한 후에는 건설본부장인 필자가 책임지고 뒤풀이를 담당했다. 술집에서 한잔하든 간단히 소주 한잔을 하든 취하기는 마찬가지로 고맙게도 의견을 같이해 줘서 마음이 가쁜 곳으로 정했다. 그러다 보니 틈날 때마다 절골 도랑에서 동면하는 개구리들이 수난을 당하고, 본의 아니게 필자의 아내에게 걱정을 끼치기도 했다.

공사에 따르는 걱정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크고 작은 참여업체들에게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의를 당부했다.

어느 날 큰덕에 갔더니 건설업을 하는 만형이 현장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고 묻기에 앞서 언급한 대로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더니 순진한 소리 하지 말라고 핀잔을 주었다. 어리둥절하여 이유를 물으니, 건설회사는 실행예산을 짤 때 고착화된 관례로 감독관실 운영비라는 묵시적인 예산을 책정한다고 했다. 아무리 뭐라고 하더라도 현장은 본사에 해당 예산을 요구하기 마련이라고 덧붙였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정신이 확 들었다.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근본적으로 봉쇄해야 한다는 생각에 현대건

어려움에 잠 못 들다

설 본사를 찾아갔다. 현대건설에는 사장 아래 국내 건설 담당 부사장과 해외 건설 담당 부사장이 있었다. 연수원 신축 공사는 그 특수성이 고려된 것인지 해외 건설 과 모 부사장이 맡고 있었다.

부사장과 만난 자리에서, 먼저 새마을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우리는 이 일이 새마을운동을 지키는 일이며, 김준원장이 모든 생애를 바치고 있는 중대한 과업임을 강조했다. 역사에 오점을 남기지 않고, 전국의 새마을 동지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서로 협조하면서 새로운 기풍을 세워 보자고 말했다. 미리 준비해 간 각서에 서명을 부탁했다. 각서는 분당 새마을지도자연수원 현장에서는 어떤 명목으로든 애매한 경비는 단 한 푼도 집행하지 않으며, 명절 때 과일 한 상자라도 나누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내용이었다. 절차가 끝난 후 다른 군소업체들에게도 이 내용을 환기시켰다.

필자는 현장사무실에 매일 커다란 얼음물 병을 준비해 두었다. 감독관들은 물론 출입하는 모든 근무자들도 시원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어느 날, 주방기구 납품업체인 독섬 대우금속 김 모 사장이 얼음물에 대한 보답이라며 박카스 한 상자를 사 왔다가 혼쭐이 났다. 이 일로 김 사장은 계약 파기 이야기까지 들었으나, 다른 업체들에게는 경종이 된 에피소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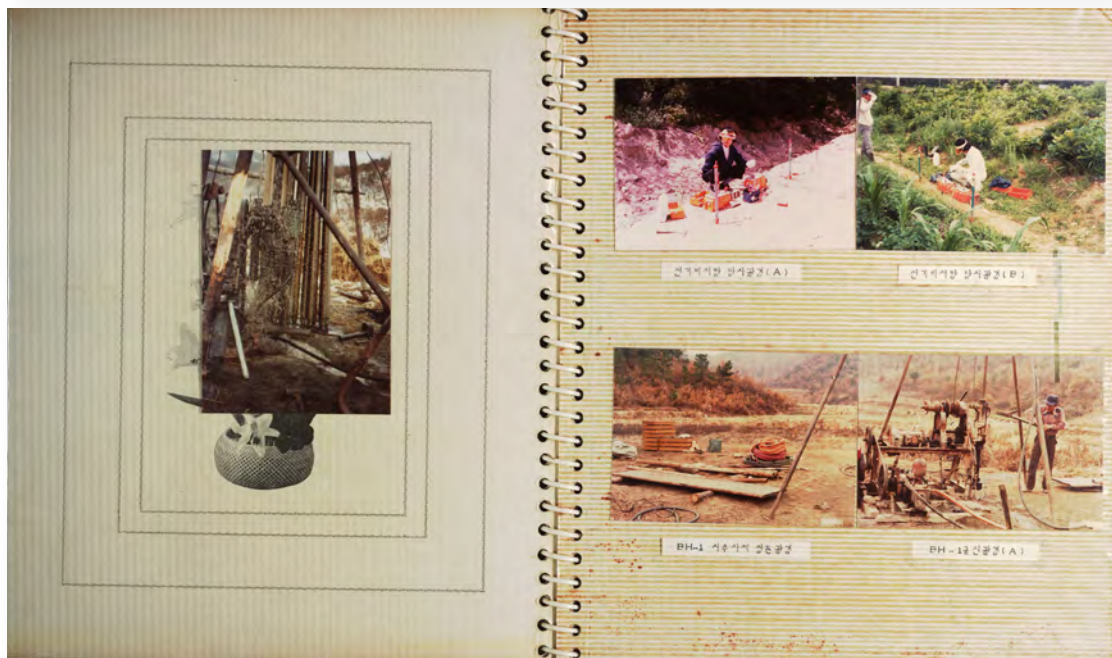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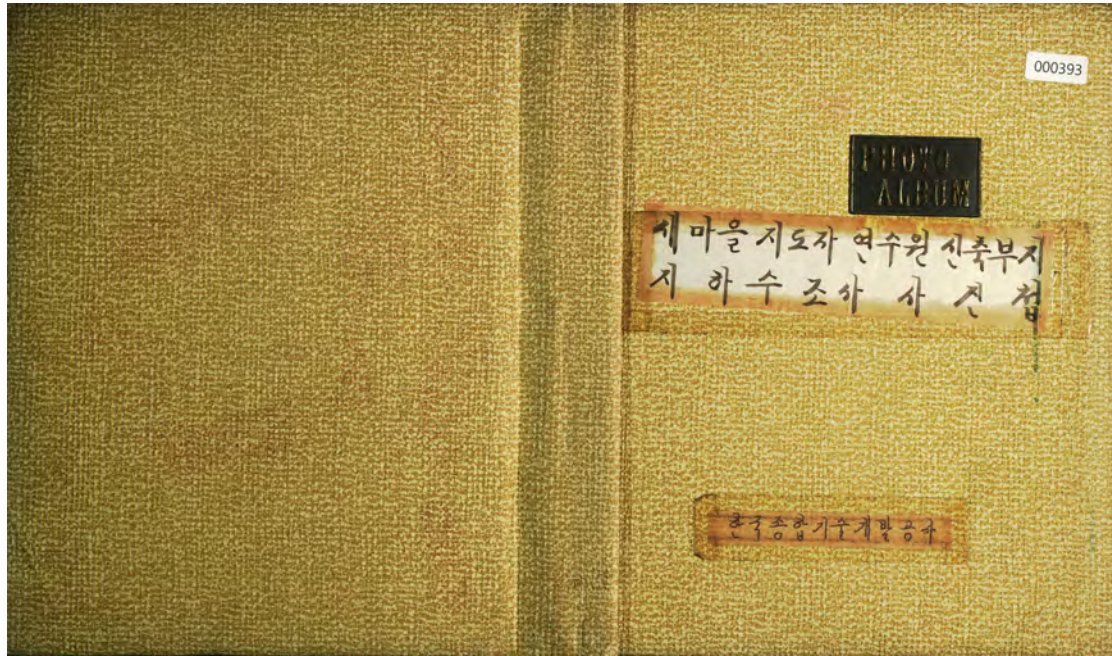
일반 근로자들까지 새마을운동에 적극 참여하는 자세로 성실히 임해준 덕분에 모든 공정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으나, 몇 가지 난처한 문제에 부딪치기도 했다.

가장 먼저 지하수가 문제였다. 연수원에서 필요한 물의 양은 하루에 300톤이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 업체라는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현 한국종합기술)에서 지하수를 개발했는데도 파는 곳마다 고작 10여톤에 그쳤다.

전리 탐사와 신부님의 버드나무 탐사까지 시도해 보고, 지하 800m, 1,000m까지 10여 공을 뚫었는데도 30톤, 최고 40톤 이상은 나오지 않았다. 도저히 절대 필요량이 나오지 않자,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에서도 포기요청을 해왔다.

‘아니 대(大)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가 손을 든다면 누가 그 일을 할 것인가?’ 당시는 분당 신도시가 들어서기 7년 전이었다. 수돗물을 쓰려면 성남 모란까지 가야 했다. 여간 낭패가 아니었다. 어쨌거나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가 해결해야만 할 일이었다. 그 일로 얼마나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았던지,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손 모 이사는 신경성으로 정신과 입원까지 하기도 했다.

하는 수 없이 대한토목학회 전문 교수들을 초청해 지하수 부존 여부에 대한 정밀진단을 받았다. 결과는 절망적이었다. 한반도의 지질 구조상 판교에서 신갈까지는 실트(찰흙)가 토사층을 깊게 메우고 있어 지하수맥이 형성되기 어려운 지대라고 했다.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지하수 조사 사진첩

달리 대책을 찾을 수가 없었다. 여러 가지 대안을 찾기 위해 많이 고심했다. 그러던 중, 연수원보다 먼저 운중동에 개원한 한국정신문화연구원(현 한국학중앙연구원)도 물이 부족해 저수지를 축성했고, 우리보다 늦게 용인시 구성지역에 착공한 경찰대학교도 지하수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들었다. 근본적으로 땅 밑에 물이 없으니 달리 방법이 없었다. 아마 이런 경우에 잠을 제대로 자거나 기도를 드리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다행히 지금의 정문 연못 뒤쪽 계곡을 따라 지하 800m와 750m 지점에서 각각 하루에 수량 40톤이 나오는 1공, 30톤이 나오는 2공을 찾아 놓은 것이 있었다. 이 3개의 공을 합쳐 식수로 쓰고, 종각 뒤 집수정(300톤)을 만들어 화장실용 위생수로 쓰기로 했다. 생활관 뒷산에는 100톤 용량의 저수조를 만들고, 정문 옆 연못도 추가로 설계 축조해 예비용 수량을 확보했다. 이때로부터 10년 후 천지개벽하듯 분당에 신도시가 들어서고, 4~5년 후에는 상수도가 들어오게 되었다.

당황스러웠던 일은 또 있었다. 토목공사가 거의 끝날 무렵, 생활관 건물 터파기를 마치고 기초 철근 배관 작업이 한창이던 때였다. 지금의 인도어 골프장이 있는 곳에 마련된 함바(임시 현장 식당)로 점심을 먹으러 가는데, 생활관 뒷산에서 부스럭부스럭하는 소리가 났다. 점심을 먹고 오는 길에도 같은 소리가 계속 나길래 감독관 전원과 현대건설 토목 담당 책임자를 대동하고 소리가 나는 산으로 올라갔다. 그 산봉우리에 1m 정도의 큰 균열이 생기며 산사태가 나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고서는 정말 기절할 노릇이었다.

생활관 터파기 공사를 하면서 뒷산의 흙을 깎아냈다. 건설부 표준 규정에 따라 법면 경사를 유지하면서 흙을 깎았는데도 산이 미끄러져 내리다니 여간 낭패가 아닐 수 없었다. 원래 토목설계에서는 토적을 계산한다. 부지 내 높은 곳의 흙을 깎아 낮은 곳에다 흙을 쌓는다.

흙이 부족하거나 남아서 불필요한 공사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토량을 정확히 계산해야 한다. 당시 산에서 흘러내리고 있는 흙은 엄청난 양이었다. 기본설계에 계상되지 않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태가 발생했던 것이다. 우선 필요 없는 흙을 옮겨다 놓을 장소가 문제였고, 흙을 처리하는 공사 비용과 공사 기간 지연 등 문제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차라리 그대로 확 쏟아져서 치우기만 하면 그나마 나을 텐데, 1.3m 정도 미끄러진 다음 그대로 정지해서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이 산 밑에 세워질 시설은 숙소였다. 600명의 인원이 잠을 자고, 야간 분임토의를 하는 곳이다. 이대로 두었다가 장마철 밤중에 폭우라도 쏟아지는 날이면 어떻게 되겠는가? 더군다나 외국인 교육까지 하게 될 것인데, 자칫하면 국제적인 문제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 이 절박한 상황은 담당자들이 아니라면 아무도 모를 일이다.

대한토목학회 교수들이 총동원되어 분석 연구를 시작했다. 세계적인, 그리고 전국적인 사례들을 접하는 분들이라 그런지 태연하기만 했다. 이런 사례가 충주댐 공사에서도 있었다고 했다. 이 지역의 특이 지질로 생긴 일이라 인식각으로 추가 절토를 하면 된다는 결론이었다. 이는 대한토목학회가 내릴 수 있는 최고의 대책이었다.

당시 울동 주민들이 공사장에 많이들 나와 일했는데, 그중 나이 많



생활관 뒤편에 자리 잡은 새마을 마크

은 사람들이 피식피식 웃기만 했다. 남은 죽을 맛인데 비웃는 것도 아니고 정색하며 웃는 이유를 물었다. 그랬더니 생각을 좀 해보라며, 그놈을 건드리면 가만히 있을 놈이 어디 있겠느냐고 되물어왔다. 도대체 그게 무슨 뜻이냐고 다그쳤더니, “그 봉우리가 공알 봉이랴오. 거기를 자극하는데 어떻게 꼼짝 않고 있겠는가?” 하고 정자나무집 아저씨가 대답했다.

현대 건축에서도 최소한의 미신은 지킨다. 새마을지도자연수원 신축 공사 현장이었지만, 주요 공정을 시작할 때는 가끔 돼지머리를 놓고 고사를 지냈다. 건설본부장이었던 필자는 누구보다 고집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만에 하나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데 관습을 따르는 안전과 직결된 문제에는 굳이 반대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새로운 각

오와 다짐의 절차로 술 한잔 올리는데 극구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마음을 달랬다.

이곳의 웬만한 골짜기는 이름까지 다 파악했는데, 이 자그마한 봉우리 이름이 그런 괴이한 이름일 줄은 전혀 몰랐다. 호되게 당한 후에는 분한 생각도 들었다.

길을 넓히다가 서낭당을 만나 공사가 중단되었다는 이야기를 지도자들에게서 종종 듣곤 했다. 그럴 때마다 새마을기를 꽂아놓고 혈면 귀신도 국법은 지키기 때문에 아무 탈이 없을 거라 일러 주었다. 실제로 그렇게 하면 아무 일 없이 사업을 끝낼 수 있어서, 우리도 산이 미끄러지던 그 봉우리 정수리에 회양목으로 새마을 마크를 눌러 심었다. 그 자리에 만들어 놓은 새마을 마크는 그런 연유에서라도 그대로 보존해야만 한다.

공사가 진행될수록 새마을지도자연수원 신축 현장에 대한 관심은 높아져 가고 있었다. 1982년, 대통령이 참석한 식목일 행사가 연수원 공사 현장과 인접한 성남시 잣나무 조림단지에서 있었다. 행사 이후 연수원 공사 현장을 찾은 전두환 대통령은 브리핑을 받고, 현장사무실에서 오찬을 가졌다. 이후 국무위원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과 귀빈들은 함께 공사 현장을 둘러보았다.

그 당시, 새마을지도자연수원과 새마을운동중앙본부는 각각 별도의 법인이었다. 새마을운동중앙본부의 전경환 사무총장은 단순 방문객으로, 공사 현장을 수시로 둘러보거나 건설 본부 현장사무실에 들러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건물 기초공사가 거의 끝나고 전체적인 윤곽이 잡혀가자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했다.

김준 원장이 각고의 영성 수련을 거쳐 창안하여 여러 방면으로 시도한 끝에 정착한 “생활, 즉 교육” 방식은 독농가 연수원에서 시작했다. 새마을지도자 교육과 사회지도층 교육이 확산되자, 새마을교육은 공무원 교육원을 비롯하여 사설 연수원에서도 필수적으로 실시했다. 그 시절 사설 성인교육원을 운영하던 사람들은 온갖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농촌운동이나 농촌개발 지도자 양성에 뜻을 두고 있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다. 고난 속에서도 추앙받는 모습이 부러웠는지, 농민교육을 하면서도 당시 상당히 귀한 외제 승용차를 타고 다니며 국회의원 자리를 엿보기도 하고, 유지 행세를 하던 사람



1980년 4월 22일 법인으로 설립된 새마을지도자연수원

새마을指導者研修院 法人化를 爲한 有関機關會議 開催 結果報告

1. 日 時 : 1979. 9. 18 (火) 16:00 ~ 17:40

2. 場 所 : 새마을 狀況室

3. 主 宰 : 地方行政局長

4. 参 席 : 9 名

참	관	장	새마을부장	지법판사	국판보
mk					

◦ 當 部 - 새마을擔當官, 새마을企劃課長
公企業課長

◦ 有関機關 - 財務部 財産總括課長 關稅制度課事務官
• 農水産部 開發企劃課長
• 總務處 人事制度課事務官
• 農協 中央會 指導部 次長
• 새마을指導者研修院 總務課長

5. 案 件 : 새마을指導者研修院 法制定에 따른
機關別 協調事項 協議

◦ 새마을指導者研修院 設置法案 檢討
◦ 租稅減免規制法中 改正法律案 檢討
◦ 機關別 協調要請事項 協議

6. 協議 結果

◦ 研修院에 對한 國家與 公共團體로 부터의 教育要員
派遣 措置規定은 韓國 精神文化研究院 育成法에
準하기로 함 (總務處)

◦ 研修院은 教育訓練法上 이미 特別教育訓練機關으로
包含시켜 教育履修者에 特典을 주고 있으므로 他法令에
依한 教育機關 其他 研修機關으로 본다는 明示規定
不要 (總務處)

◦ 國有財産의 無償貸付 또는 讓與의 使用收益 措置는
가능한 限 讓與가 아닌 無償貸付로 하의 事業에 支障을
주지 않도록 積極 協調하겠음
(財務部) → 讓與 包含再要請 (內務部)

◦ 關稅 減免要請은 租稅減免規制 特別措置法을
改正할 必要없이 施行規則 (財務部令)의 改正만으로
可하므로 協調하겠음 (財務部)

◦ 法律案에 關하여 何等 異見없음 (農水産部)

◦ 他機關으로 부터의 派遣勤務者 派遣期間을 延長
할수 있는 方案 建議 (研修院)

※ 研修院의 業務運營, 豫算, 財産, 人力 等 法以外의 事項에
關하여 承繼가 必要한 것은 詳細히 檢討하여 回示바람 (內務部)

0640 81 980



새마을지도자연수원 생활 모습

도 있었다. 본성이 그런 건지, 나름의 정의감에 불타서인지, 또는 새마을지도자연수원 신축을 불편하게 느꼈던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들은 초고위층에게 형평성을 거론하며 호화 연수원이라고 모략했다.

이들이 10·26 사태 이후 새로운 흐름이라는 시류에 편승하여 끊임없는 공세를 퍼자, 들은 척이라도 해주기 위해 연수원 신축 규모 축소 지시가 내려왔다. 이미 전(全) 시설에 대한 기초공사가 완료되고, 골

조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하란 말인가?

계속되는 압력과 채근에 불가피하게 단안(斷案)을 내려야만 했다. 어느 것 하나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우천 시 주요 행사와 옥외 행사에 대비한 대강당 체육관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보니 원래 사찰 요사채 배치법에 따른 회랑 일체형 시설구조가 파손되었고, 전천후 기능이 완비된 전통 건축미도 포기해야만 했다. 30년이 훨씬 지난 2018년 현재도 완공이 되지 않은 상태다.

언젠가는 새마을운동중앙회가 연수원을 통합하고, 전국적인 또는 세계적인 대규모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는, 체육관식 대강당은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 강의동 앞 돌 마당 쪽에는 기초공사가 완료된 대강당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당장이라도 흙과 벽돌을 걷어내고 골조 철근을 연결하여 공사를 계속할 수 있게 돼 있다.

실시설계 상세도는 지금까지도 관리부서에 보관되어 있을 것이다. 대강당이 완성되면, 그야말로 새마을운동 본산으로서의 위용을 세계적으로 자랑할 수 있을 것이다.



가을

소중한 후원이 이어지다
건물에 담긴 숨은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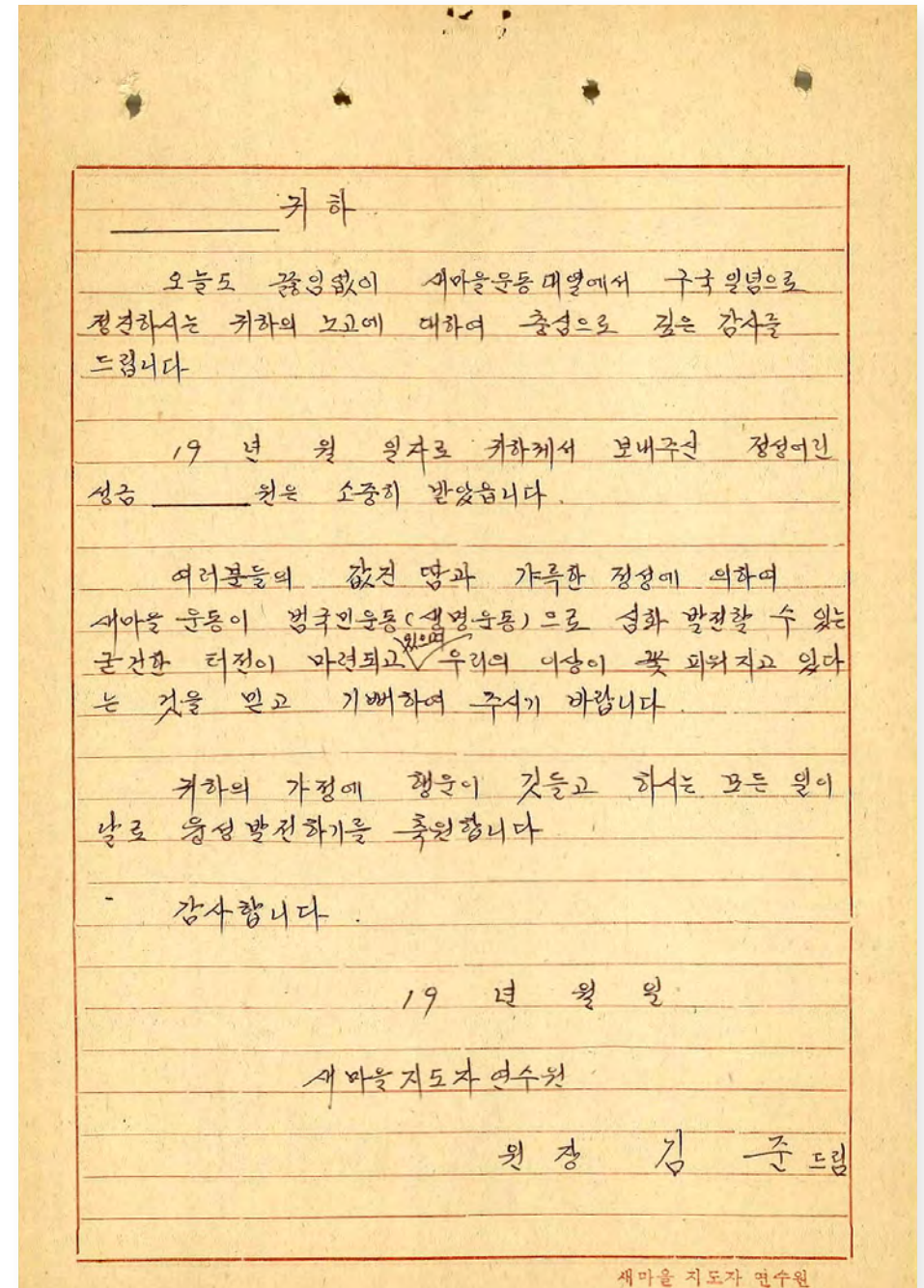
소중한 후원이 이어지다

전체 예산에서 보류된 시설의 공사비를 제외하고 나니, 당초에도 빠듯하게 세운 조경공사비가 적지 않게 부족했다.

조경은 다소 미흡하더라도 교육 수행에는 직접적인 지장이 없으므로 시간을 두고 보완하기로 했다. 이런 속사정을 잘 알고 있던 내무부 주무부서(새마을교육과) 공무원들이 모금을 하여 돌 마당 법면에 좋은 느티나무를 심어 주었다. 큰 운동장 둘레에는 교수 부인회에서 조성한 공동 기금으로 자작나무를 구입해 심었다.

이 소문을 들은 광주광역시 이현임 부녀지도자는 동남아 여행을 가기 위해 비행기 표까지 샀다가 모든 계획을 취소하고 그 비용으로 트럭 3대에 조경수를 싣고 왔다. 건축이 보류된 대강당 자리 빈터와 경사면 그리고 진입로 운동장 법면에는 이 조경수를 심었다.

연수원 내 모든 길가와 운동장 곳곳에는 꽃씨아줌마 이덕훈 씨가 기증한 장미 3천 그루를 심었다. 삼성그룹 이병철 회장은 자연농원(현 에버랜드)에 있던 살구나무 30그루를 보냈다. 이것으로 기본적인 배식(培植)은 할 수 있었다. 허전한 부분은 필자의 집 울안과 전담 근처에서 가꾸던 나무들(버스 2대분)로 보충해 심었다. 이후에도 수료생들의 기념식수나 고위 인사들의 방문 기념식수로 조경은 계속 보완해 나갔다. 주변 수목이 성장하면서 짙은 녹색과 갈색 벽돌 건물이 멋진 조화를



성금 기탁에 대한 감사 서한문



건립 초기 연수원 전경



연수원 생활관 앞에 자리 잡은 종각과 새벽종



이루었다.

수료생들이 모아준 건축 성금은 도급계약에 따라 건축공사비가 확정되자 별도의 뜻 있는 사용처를 찾다가 새벽종을 울리는 종각을 짓자는 의견으로 모아졌다. 성금 내에서 전통식 팔각 정자를 짓기로 했다.

고(古)건축 전문가가 공사를 담당해 쇠못 하나 쓰지 않는 전통 고건축 공법으로 지었다. 대들보 위에 한 트럭의 호박돌을 올려 그 무게로 정자의 균형과 구조를 유지한다는 것은 매우 기이했다.

종각의 준공에 맞추어 대구 수료생 협의회 효종회(曉鍾會)(회장 백낙석)에서 100관의 범종을 모아 왔다. 효종회의 효는 새벽 효(曉)자로, 새벽종 모임이었다.

연수 기간 중 매일 아침 정교관 부원장은 목욕재계를 하고 기상 시간에 맞추어 새마을운동이 제창된 연수(年數)만큼 타종을 했다. 연수생들은 인위적인 기상나팔이나 음악보다 산사의 범종 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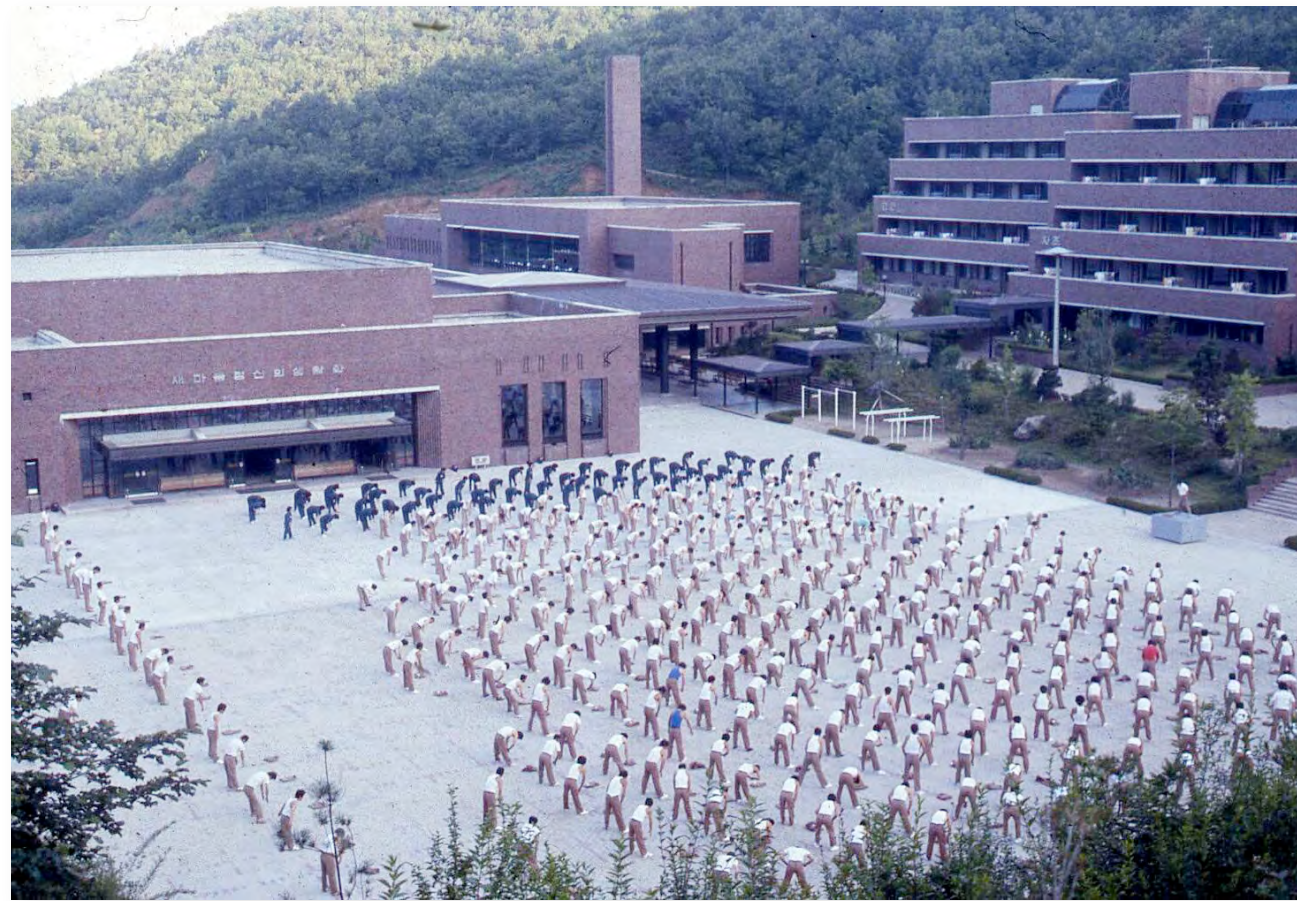
건물에 담긴 숨은 이야기

각 건물마다 목적에 맞도록 특성을 고려했다. 생활관의 경우 합숙 훈련의 스킨십 효과를 최대한 거둘 수 있게 했으며, 주변 자연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침실과 분임토의실을 배치했다. 화장실과 휴게실도 마찬가지로 배치했다.

야간 취침 시 만에 하나 통로가 차단될 경우, 전면 베란다에서 침구용 시트를 이용해 아래층으로 내려가 긴급 대피할 수 있도록 계단식으로 층을 만들었다. 베란다는 4개 분임반의 공동 휴게공간이면서 매일 변하는 자연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전망대가 되기도 한다.

세면대에서 발을 씻는 것이 위생상 좋지 않고, 파손의 우려도 있어서 발 씻기 편하고, 청소용 대걸레도 빨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 처음으로 시도하는 시설이다 보니 적당한 이름이 없었다. 여러 차례 토의를 거친 결과 발을 씻는 곳이니 ‘세족(洗足)대’가 좋겠다는 의견으로 모아졌다. 이 세족대는 비슷한 다른 시설에 이름과 함께 많이 도입되었다.

또 다른 이야기는 시청각 기자재 구입 과정에서 겪었던 일이다. 방송 장비 중 메인 앰프는 일본제품인 히타치로, 전체 음향 제어 장치인 콘솔 데스크도 일본제품으로 구입하기로 결정했다. 슬라이드 프로젝터마저 미국 코닥 제품으로 정하자, 당시 서정화 내무부 차관이 “아니, 국산 기자재로 한다던 원칙은?” 하면서 되물었다. 그때만 해도 국산



국민체조로 아침을 시작하는 새마을연수생

슬라이드 프로젝터는 생산되지도 않았고, 앰프는 인켈에서 생산은 했지만 성능이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아무리 강의실을 잘 짓고 좋은 강사를 모셔도 음향이 좋지 않으면 교육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설득했다. “우리 수준에 슬라이드 프로젝터 하나 제대로 생산하지 못하느냐?”는 대목에서 시간이 많이 걸렸다.



분임토의 중인 새마을연수생



생활실을 정리정돈하는 새마을연수생



분임토의 결과를 정리 중인 새마을연수생



새마을역사관

새마을운동 역사와 기억을 위한 공간

새마을운동 역사와 기억을 위한 공간

다음은 새마을역사관 구상과 설치에 관한 이야기다. 수원 농민회 관에 있을 때, 3층에 소규모 농업전시관을 두었다. 수요일 점심시간에 잠시 개방했지만 빈약함을 느껴 신축시설에는 국내외 방문객을 위한 제대로 된 새마을전시실을 두기로 했다.

그에 따라 두 가지 중요한 과제가 생겼다. 첫 번째는 전시실 규모와 크기 및 위치였고, 두 번째는 무엇을 어떻게 전시할 것인가와 전시물들은 어디서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였다. 이 역시 여러 각도에서 아카데미플랜을 세워 보았지만, 전시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는다 해도 새마을운동과 새마을교육에 대한 이해의 한계로 인해 건축설계와 마찬가지로 자체적인 구상을 통해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공간 배치는 부지(敷地) 지구(地區)계획을 세울 때 연수원 전체를 교육지구, 일반시민 개방지구, 교직원 주거지구로 분할하고, 역사관 전시시설은 시민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 및 견학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일반시민 개방지구로 독립시켰다. 그 규모와 내용은 새마을의 특성과 질박(質朴)성을 유지하면서 전(全) 시설의 교재화(化)와 전(全) 환경의 교육장화(化)에 부합하도록 중점을 두었다.

전시물은 원내 생산 문서와 원외 새마을 현장 물품을 수집하기로 했다. 전시 방향에는 새마을운동이 시작되기 전의 모습과 새마을운동



새마을역사관에 전시된 새마을운동 기록물

이 전개되던 과정과 발전, 변모된 모습, 새마을교육 내용과 외국의 관심 등을 포함했다. 전시 방법은 영상 전시, 실물 전시, 문건(서) 전시, 게시물 제작 및 부착 등으로 공간을 구성하되, 자료 보존실은 별도로 두기로 했다.

원내 자료는 시청각 교육용 16mm 영화 필름, 슬라이드, 수료생 앨범, 분임토의 결과보고서, 입교 및 수료 소감, 수료생 서신, 과정별 교재, 새마을 화보, 정부 및 기타 유관기관 간행물 등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 중 가장 소중한 자료는 분임토의 결과 차트와 성공사례 및 강의 녹음 자료였다.

분임토의 결과 차트는 갱지로 된 전지 크기로, 분임토의한 대화 내

용을 모든 토의 참여자들이 친필로 작성해 기록했다. 모든 과정별, 분임반별로 작성한 차트는 전량 보존하고 있다. 1972년 1월 시작한 독농가반 1기 차트 1~2부가 손실되긴 했지만, 대부분 그대로 보존하고 있어 먼 훗날 난중일기 같은 귀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초기에는 인력 부족으로 정리하지 못하고 한곳에 모아 두다가 1976년에 필자와 김찬수가 이를 정리했다. 차트들을 정리하다 보니 쥐가 집을 짓고 살고 있었다. 몸에 쥐벼룩이 올라 두 사람이 한참을 고생하기도 했다.

외부 자료는 현지 생활교육 마을과 수료생 마을을 찾아다니며 옛 농기구나 생활 도구, 그리고 마을 기록물 등을 수집했다. 이천 대월면 송라리(지도자 김경열)에서는 100년이 넘는 미곡은행 사발통문 등 귀한 자료를 수집했다. 각 마을에서 생산한 주민총회 회의록이나 작업일지, 출석부 등 생생한 기록물과 새마을지도자들의 일기장, 마을 현황 소개용 브리핑 차트 등도 수집했다. 연수원 대형버스를 갖고 다니며 주로 경기도, 충청남북도, 강원도 등지의 마을에 있는 자료들을 모았다.

안타깝게도 마을 단위에서 생산한 많은 자료들이 문서 보존 기한 5년이라는 관공서 기준에 따라 폐기되어 없어졌고, 남은 일부는 마을에서 보존하겠다고 내놓지 않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양의 자료가 수집되었다. 전국의 각 시군에서도 디딜방아 등 민속 유물들을 보내 주었다. 이렇게 수집한 자료들은 2013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세계 인류의 기록유산으로 보존되고 있다.

새마을역사관의 건물 구조는 진입 로비, 주 전시실, 자료 보존실,

부속 강당, 사무실 겸 전시물 제작실, 상담 접견실, 전시물 보관 창고, 옥외 전시 공간으로 구성했다.

주 전시실은 방 가운데 기둥을 두지 않는 특수구조로 했으며, 지붕은 경량 철골 골조를 요하는 장스팬을 도입했다. 10여 년이 지난 후 애석하게도 지붕 방수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특수공법 구조를 무시한 과중한 레미콘 투하로 천정이 내려앉아 인명 사고를 포함한 전시물 파손 사고가 발생해 본래의 모습을 잃은 적도 있었다.

전시실 내부 인테리어와 각종 전시물은 직접 현장에서 제작했다. 공예가 고(故) 박성호 선생과 목공 기능올림픽 출신 이남열 선생이 혼신의 정열을 바쳐 밤낮으로 사진액자까지 제작했다.

입구 로비 공간에는 새마을을 상징하는 이슬 맺힌 대형 새싹 3점을 원목으로 제작해 돌아나는 형상을 표현했다. 전시실 입구 우측 벽면에는 새마을운동의 영속 발전을 기원하는 모자이크 목판 십장생도를 제작해 부착했다.

건너편 소강당 벽에는 '새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우리 민족이 고난의 역사를 마무리하고 사해(四海)를 향해 웅비의 나래를 펼칠 것을 노래한 노산 이은상 선생의 장편 서사시를 대구 효종회(曉鍾會) 회원인 조성욱 지도자가 서예로 써 내려간 대작을 게시했다. 전시관 입구 벽면에는 새마을운동이 세계로 확산되기를 기원하며 새마을 마크를 음각(陰刻)과 양각(陽刻)으로 목각하여 가득 채웠다.

새마을운동 이전 우리의 생활 모습을 종합적으로 보존하기 위해, 율동 마을이 주택 개량을 위해 구옥을 철거할 때 그중 한 동 전체를



현재 새마을역사관 로비 모습



울동 마을의 옛 가옥을 축소 복원한 초가집

인수했다. 이를 3분의 2 크기로 축소에 복원하고, 여러 가지 생활 도구와 닭장까지 재현했다. 이 일은 울동 토박이 목수 고(故) 남상연 씨가 맡았다. 논산 연무읍 동산리 황종철 지도자의 마을환경 개선 사업 이전 사진과 사업 이후 파노라마 사진도 전시했다.

새마을운동 해설, 새마을교육 교재 등을 전시하면서 새마을운동 이전의 농촌 풍경과 취락구조 개선 이후의 풍경을 축소 모형으로 재현하고자 했다. 이 작업을 맡은 대학생들이 옛날 농촌과 초가집에 대한



새마을역사관에 전시된 취락구조 개선 모형

이해가 부족해 몇 번을 시도했지만 실감이 나지 않아 큰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각 마을에서 수집한 새마을사업 추진 기록이라든지 아주 옛날 마을의 대동계 기록, 남녀 지도자들의 일기장 등도 기록물로 전시했는데, 꽃씨아줌마 이덕훈 씨의 일기는 천안 목천 독립기념관(7관)에서도 전시하고 있다. 그때만 해도 영상물은 슬라이드와 16mm 영화 필름이 전부였던 터라 프리즘 원리를 이용한 4면 거울 영상은 많은 호기심



항온항습실에 보존 중인 분임토의 차트

을 불러일으켰다.

자료실에는 분임토의 결과 차트를 팔만대장경처럼 보존 전시하고, 각종 화보, 교재, 앨범, 슬라이드, 영화 필름, 교육 결과 분석자료 등도 보존 전시했다. 그 후 수차례에 걸쳐 개선 및 보완 작업을 했으나, 지질이 좋지 않은 갯지 차트는 별도의 방부 처리를 거쳐 항온(恒溫)실에 보존하고 있다.

영사실 소강당에서는 단체 방문객들을 위한 강의나 영화 상영 등을 진행했다. 역사관 운영은 전담자를 배치해 방문객들을 안내하고, 연수생들은 연수 기간 중 별도 관람 시간을 배정해 관람하도록 했다.

옥외 전시 공간에는 조형물을 설치하거나 새로운 농기계 등을 전시할 계획이었지만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



겨울

새로운 첫발을 딛다

새로운 첫발을 딛다

신축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이르자 새마을운동중앙본부에서 준공식을 주관하겠다는 연락을 보내왔다. 1983년 4월 당시 새마을지도자연수원과 새마을운동중앙본부는 별도 법인이었으나 상황상 준공식을 주관하겠다는 새마을운동중앙본부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었다.

그러나 행사 준비를 하러 나온 새마을운동중앙본부의 직원들이 추리닝 차림으로 다니는 모습을 도저히 눈 뜨고는 볼 수 없었다. 결국 애먼 본부 총무부장에게 화풀이를 했다. 누구는 매일 같이 목욕재계 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는데, 준공식이라는 대사를 앞두고 추리닝 차림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여간 불편하지 않았다.

건설본부장이었던 필자의 소갈머리가 좁아서였는지 그냥 보고 넘길 수만은 없었다. 모든 동작을 중지시키고 야단을 했더니, 다음 날은 근무복을 입고 나와 좀 더 조심스럽게 행동했다.

마침내 1983년 4월 26일, 전두환 대통령과 부총리, 경기도지사, 그리고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성대한 준공식을 개최하며 성남 새마을지도자연수원의 새 시대를 시작했다.



새마을운동 교육의 산실로 거듭난 새마을지도자연수원



저자 소개



김기명

- 1940년 경상남도 거창군 출생
- 1974년 새마을지도자연수원 직원·교수
- 1980년 새마을지도자연수원 건설본부장
- 1987년 새마을지도자연수원 연구부장
- 2008년 새마을역사연구원 이사장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신축기

저자

김기명

윤문 및 편집

새마을운동중앙회 홍보실

발행처

새마을운동중앙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새마을로 257

Tel (031) 620-2300

발행일

2025년 4월

디자인·제작

(주)디자인공공

Tel (044) 417-6126